

박한철 선생님과 함께하는 뉴스공부



2016.10.17
박한철(덕성여고)



오늘의 학습주제

- 댓글의 의미와 영향력
- 댓글을 읽고 쓸 때의 바람직한 태도와 예절

박한철 선생님의 이야기

아고라 뉴스

전체

아고라홈 MY 토론 이야기 즐보드 청원 국민신문고

베스트 실시간 토론 이슈 자유토론 정치 경제 부동산 주식펀드 사회 교육 문화·연예



대세 짹추기 게임! 플레이사천성 프렌즈사천성



이슈

기획 토론 | 주최: 서울시헌부모가족지원센터/ 주관: 미혼모지원단체협의회

미혼모! 질타의 대상인가, 보호의 대상인가

한국에서 미혼모, 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혼모가 되는 순간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낙인, 생활고라는 삼중

이슈 내용보기



참여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위글 | 아랫글

패널 청소년 미혼모의 대안책은 무엇일까요? [323]

조회 23678 | 11.05.31 15:33

☆ 즐겨찾기 |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름 박한철
소속 덕성여자고등학교
경력
사이트

박한철 선생님의 이야기

몇 년 전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여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반 학생 중에 임신한 학생이 있는데 임신 2개월쯤 되었고 부모님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며, 남자친구는 당장 낙태를 하라고 화만 내고...그 학생은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임인 자기에게 상담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일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선생님으로서는 여고에서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는 제가 뭔가 뽕족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낙태를 하지 않은 경우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미혼모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여고생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당사자인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그런 문제를 상담하러 왔다는 사실 자체가 더 놀라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반 학생들에게 만약 청소년 미혼모가 담임선생님께 상담을 하러 왔다면 선생님이 어떻게 대해 주는 것이 좋겠냐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징계해야 한다", "퇴학시켜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은 "학생을 용서하고 아이를 낳은 상태에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론적인 정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쳤을 때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청소년 미혼모가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학생들의 미래를 감안한 멋진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박한철 선생님의 이야기

네터즌 댓글 323개

작전관

이전에도 사회에 드러나지만 않았을뿐 자살해버리거나 그런경우가 많아서 묻혀져서 그렇지 이해해줘야 한다 모두가 인간이다 11.06.01

0

작전관

이미 예고된 사회 아니 이미있었던일이 조금 드러난것일뿐 선택은 본인이 아기를 낳아서 키울것이면 모자보호센터로 아니면 낙태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심스럽게 도와주어야 하고 부모를 아주 정성으로 설득하는일도 우선 부모가 안받아들인다면 부모도 모르게 해줘야 아직은 정답 11.06.01

0

슈바이텐베르크

보호의 대상인가? 난 모르겠다. 11.06.01

0

우리집

불량품은 폐기 해야죠. 11.06.01

0

뇌물왕 개능현 씹삭히 잘돼졌다

여중생, 여고생 치마를 잘라 미니 스커트 만들어 입고, 남녀공학, 포로노 돌려보기, 복도에서 포옹하는 거 허용한 게 누구냐..뇌무현 시절부터지...서울시 광능현 인간에게 물어봐....ㅋㅋㅋ 11.06.01

0

Maple

어디알바지 모르겠지만 참 거시기하게 글쓰네 별 니 아이디 그대로 너한테 이름만 바꿔서 돌아갈꺼다 .. 11.06.01

뇌물왕 개능현 씹삭히 잘돼졌다

넌 민쫌당 알바냐....나는 열린돼지우리당 알바다...어쨌꺼...ㅋ 11.06.01

lawlover

이런!!!!!! 봉신 삽질하는놈의 새끼!!!!!!1 너는 그냥 니엄씨애비옆에가서 그냥 확~~히 깨물고 뱉지라니까!! 이런 개 꼴통새 끼야!!! 23살 쳐드시고 할일진짜 없다.. 노무현하고 무슨 원한과 앙금이 남았다고 죽은 사람 욕이나 하고다니고.. 널 낳은 니 애미가 불쌍하다 이런 개후레아들놈의 새끼야. 예고예고예고 이런 개후레아들놈의 새끼!!!! 그냥 뱉져 너같은 개 말종새끼는 뱉져도 누가 눈하나 깜짝안할텐께.. 그냥 허 깨물고 뱉져버려!! 이런 개쓰레기같은 종자... 11.06.01

뇌물왕 개능현 씹삭히 잘돼졌다



예궁...민쫌당 알바하며 악플다느라...애쓰다...옛다 관심...ㅋㅋ 11.06.01

lawlover



참 나이살이나 쳐드시고 할일 진짜 없나보네.. 불쌍한놈.. 어린놈이 이런 댓글쓰는일은 없을테고 참 알다가도 모를 종자네..불쌍한놈의 새끼.. 11.06.01

박한철 선생님의 이야기



감자맨

말도 안되는 개소리 하네..내자식은 내돈으로 키우고 미혼모 자식은 국가돈으로 키우냐.. 이걸 어느나라 개 잡소리여..지들이 깨부신걸 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거여.....우리가 10대 일때는 하지말란거 안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세금열심히 내는 생활하고 있는데 하지 말란거 하면서 쳐 싸질러 놓은 애새끼들을 왜 우리가 책임 지냐..말 잘듣고 착한님들이 사고치고 말안듣는님들께 똥치워주는게 공정한 사회냐. 사회적인 불량품들은 빨리빨리 처리해버려라. 위에 고당새끼들은 지들이 세금 안내니까 관용을 베풀자는 거고 세금 직접 내봐라 정말 불량품들한테 세금낭비하기 싫다. 11.06.01  

jhcsmg



'교사' 라는 직업의 역할을 정의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미혼모 상담도 포함해야 할까? 뭐.. 한가한 직종이니까.. 무엇을 해도 좋겠다. 만약 그렇다면 임신 전에도 물어보고 임신 후에도 물어보고 해야지. 교미를 해도 적극 지원해주고 낙태를 해도 지원해주고 출산시에도 지원해주고 다 지원해주지 뭐. 11.06.01  

오페라의유령



박한철 닥부터..... 미혼모에게 돈천만원 일단 지원해.....이런말할려면 분유값이라도 보태 태놓고... 그리고 나서..... 좀 책임감있게 주댕이 나볼거려야..... 애가없어서....철이 없 나... ㅜㅜ 11.06.01  

박한철 선생님의 이야기

HappyDay



현재 우리사회에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각과 정부의 지원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지켜줄 수 없다면 산모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이 귀하듯 어린 미혼모의 남은 생도 귀중합니다. 미혼모나 아기에게 부정적이면서 낳아 키우라는 건 죄 없는 아기는 물론이거니와 어린 미혼모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형벌치고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낙태가 허용된다 해도 역시 최종선택은 미혼모 본인이 해야 되겠죠. 우리사회가 각종 범죄자들보다 미혼모에게는 왜 새디스트적으로 구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11.06.01  

현이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은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임신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같은 경우 낙태도 쉽지 않습니다. 두렵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학교에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아이들이 언제라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가 필요합니다. 1인 1학교 상담교사가 꼭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는 교사의 복지만 있고 아이들의 복지에는 전혀 무관심한지 모르겠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이 제일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대책없이 세상으로 내몰린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랄수 있겠지요..안타까워요.. 11.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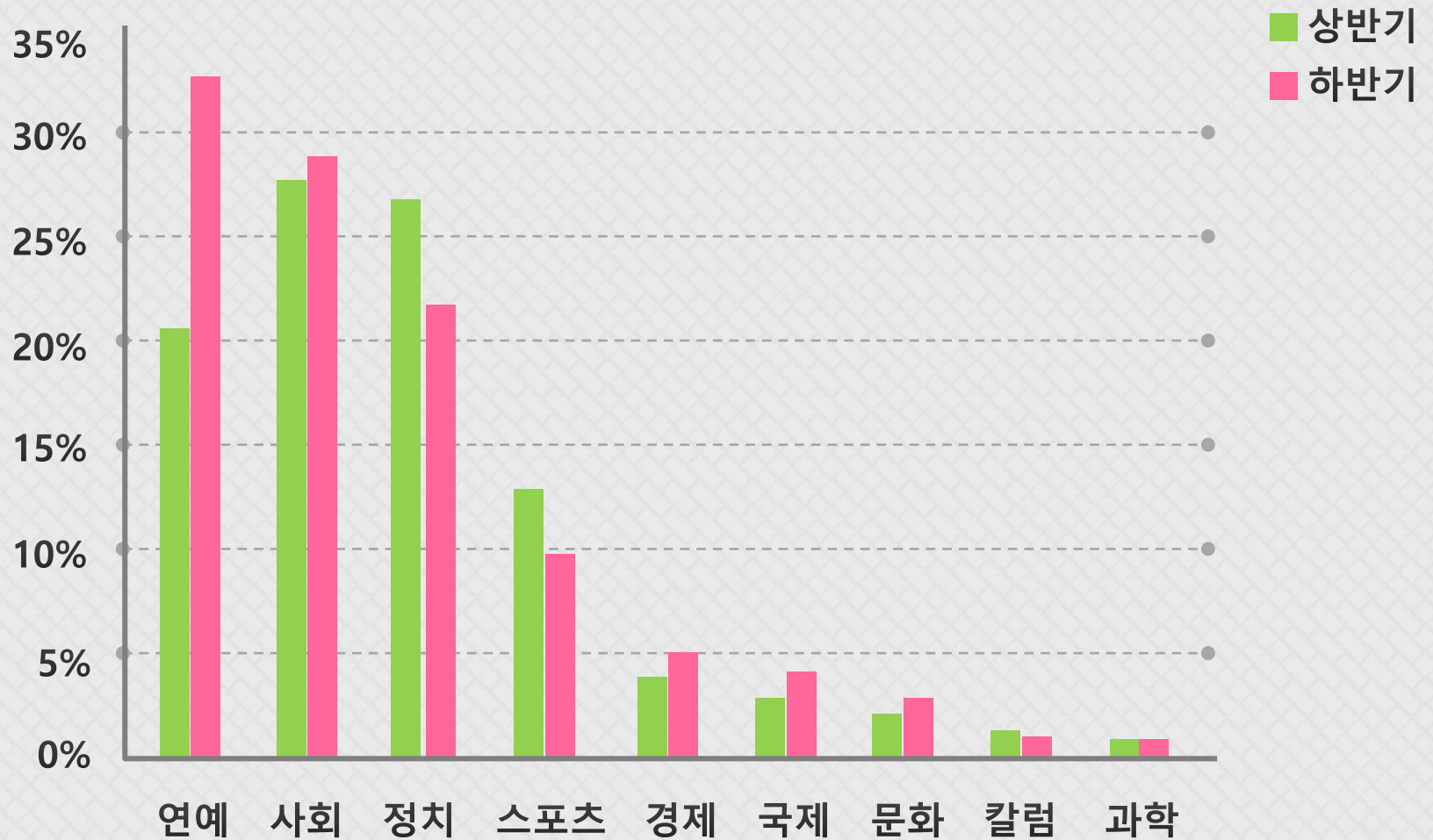


침집자먹는남자

아이를 낳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 무엇이 좋고 좋지 않다는 따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 주어진 환경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신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것도 좋지만, 당사자 본인 스스로 모든 것 결정을 내리게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아이의 환경과 여러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1.05.31  



분야별 댓글 점유율



분야별 댓글 점유율

TVREPORT

글꼴

-

+

인쇄

'구르미' 박보검, 독 마시고 쓰러졌다 '천호진 계략' [종합]

기사입력 2016.10.17 오후 11:06 | 최종수정 2016.10.17 오후 11:12 | 기사원문 | 댓글 2,754



댓글 2,754

이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

접기

16%

84%



남자



여자

12%

10대

17%

20대

24%

30대

35%

40대

12%

50대 ↑

N qfocus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와 양질의 댓글 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또는 특정 계층/민족, 종교 등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300

등록

댓글번역 언어설정

한국어

✓ 호감순 최신순

leey****

내일이 막방인데 ㅠㅠ 세자 살려라
7시간 전 | 신고

답글 57

4896

77

sere****

눈빛으로 연기하는 배우 박보검 나날이 발전하는 당신의 연기를 응원합니다 ♡

7시간 전 | 신고

답글 24

3923

87

반기
반기

박보검에 대한 댓글

vkdh****

세 자저하 죽이면 작가집 쳐들어갈사람 모집

7시간 전 | 신고

답글 10

579

21

↳ kjm0****

나 여순디 서울 올라간다.진 짜다

7시간 전 | 신고

↳ marj****

나 인천인디..지금 출발했다.^^...감히세 자저하를 건드리다니..♥

6시간 전 | 신고

↳ blue****

여기 잠재적 범죄자들이 있다해서 와보았다

6시간 전 | 신고

↳ edel****

여긴 양양, 내일 새벽버스 타고 갑니다.

6시간 전 | 신고

↳ vini****

진준데 표 예약할까할ㅠ

6시간 전 | 신고

↳ home****

대군데 바로 기차타고 간다

6시간 전 | 신고

↳ espa****

저만 서울인가요 상암동으로 갈까요 가까운데~

2시간 전 | 신고

hoil****

김현 영감탱이 가만안됨

7시간 전 | 신고

답글 11

421

13

mint****

보검이 연기 썰었다 오늘 얼굴만 잘생긴게 아니었음 쳐죽일놈의 영상과의 대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음 대상받아도 마땅하리

7시간 전 | 신고

답글

402

12

dmsw****

원래 역사에선 저렇게 슬프게 죽지만..드라마는 따뜻한 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세요~저희 엄마님 아쉬워 하세요 ㅠㅠㅠ

7시간 전 | 신고

답글 1

384

7

이화여대에 대한 댓글

최순실 딸 대학특혜 의혹 논란

이대 "최순실 딸 입시 특혜 없었다"...학생 1000여명 "부끄럽다"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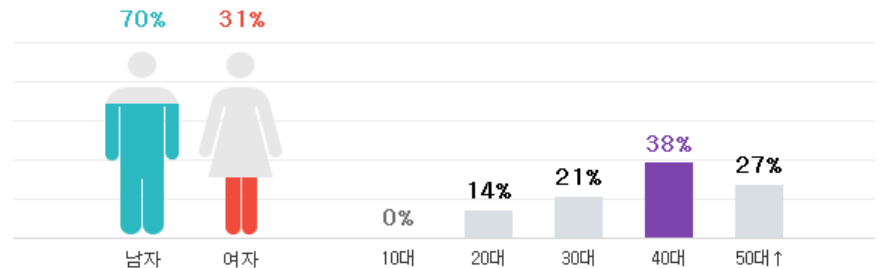
학교 측 "특조위 구성해 조사할 것" 최경희 이대 총장 "사퇴는 없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17일 ECC 이삼봉홀 앞에서 '총장님 부끄럽습니다' 등이 적힌 손팻대... **서울신문**

- ▶ 평행선 달리는 이대, '불통 정권' 도플갱어? **노컷뉴스**
- ▶ '망할 XX, 웬만하면 비추'...최순실 딸 비속어 리포트 학점 C+ **중앙일보**
- ▶ 최순실 딸 리포트엔 '망할xx' '비추함' **조선일보**
- ▶ 이대 의류학과 학생들, 최순실 딸 특혜 의혹에 "당신들이 교육자?" 대자보 부착 **경향신문**
- ▶ '최순실 딸 의혹' 해명...학생·교수들 "총장 퇴진" **SBS 뉴스**
- ▶ 이대 "최순실 딸 입학 특혜 없었다...학사관리 부실은 일부 인정" **연합뉴스**
- ▶ [인터뷰] '최순실 딸 의혹' 이화여대 교수협 입장은? **JTBC**
- ▶ 우병우 장모, 이대에 1억 기부...이대는 '장모 CC'서 골프 추진 **경향신문**
- ▶ 이대, 정유라 의혹 조사할 특위 꾸린다 **한겨레**
- ▶ 이대 '최순실 딸 특혜 논란' 간담회...뒷말 낚은 해명 **JTBC**

댓글 404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

접기



N qfocus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와 양질의 댓글 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또는 특정 계층/민족, 종교 등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300

등록

호감순 ▼ 최신순

qfocus

진실을 밝혀 주세요. 제발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방금 전

답글

0

0

kkm9****

#그런데 최순실은?? #그 딸녀는?? 개판이며 나라가 xx년을 때문에!!다해쳐먹네 최순실이가
5분 전 신고

답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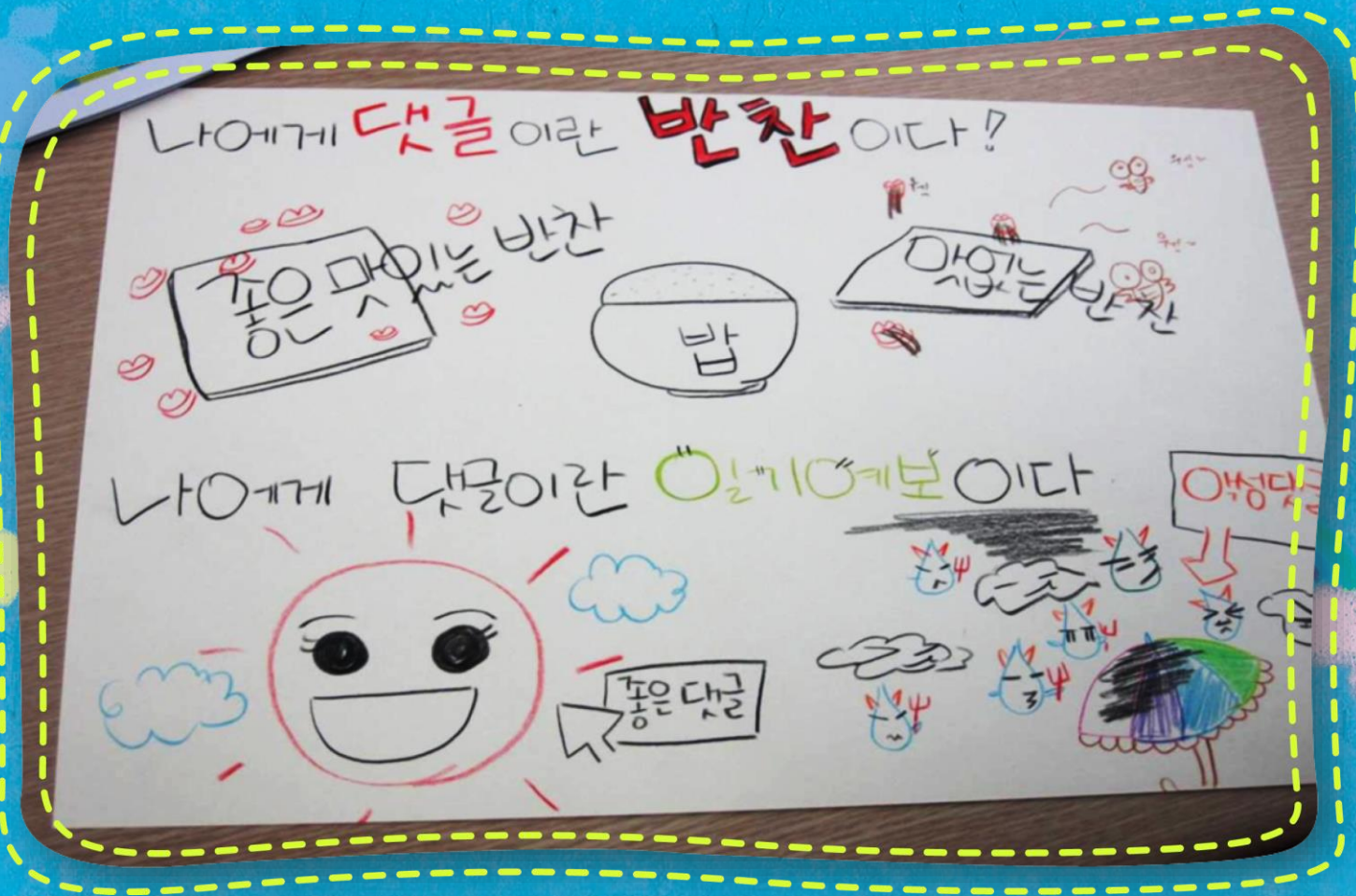
0

활동

내가 생각하는 넷글이란?



내가 생각하는 **댓글**이란?



내가 생각하는 **댓글**이란?

나에게 댓글이란,
'엄마'다




듣기 좋은
칭찬

따뜻한
충고



댓글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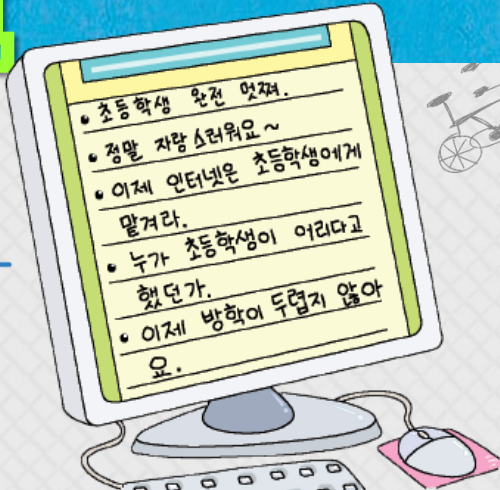
- 
- 초등학생 완전 멋져.
 - 정말 자랑스러워요~
 - 이제 인터넷은 초등학생에게 맡겨라.
 - 누가 초등학생이 어리다고 했단가.
 - 이제 방학이 두렵지 않아요.

대화와 소통의 수단 **VS** 인터넷의 그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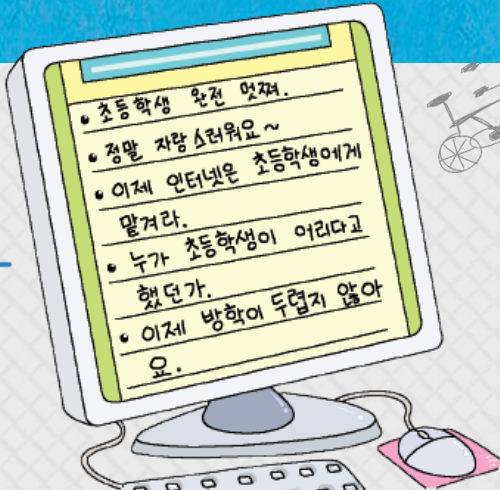
여론형성과 공론의 장 **VS** 비난의 장

자부심과 긍지 **VS** 불쾌감

선물 **VS** 저주

- 
- 초등학생 완전 멋져.
 - 정말 자랑스러워요~
 - 이제 인터넷은 초등학생에게 맡겨라.
 - 누가 초등학생이 어디라고 했단가.
 - 이제 방학이 두렵지 않아요.

댓글을 읽고 쓸 때의 마음

- 
- 초등학생 완전 멋져.
 - 정말 자랑스러워요~
 - 이제 인터넷은 초등학생에게 맡겨라.
 - 누가 초등학생이 어리다고 했던가.
 - 이제 방학이 두렵지 않아요.

댓글을 읽는 이유

다른 사람들의 생각파악
나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감
본문의 내용과 다른 견해 파악
배경지식과 관련된 정보획득

댓글을 읽을 때는 이런 마음으로

관용: 서로 다름을 너그럽게 인정

마음나누기 : 글쓴이의 마음상태를 함께 나눔

배려 : 존중, 상냥함

이해심 :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나의 댓글은 타인에게 영향을 줘요!



‘960번 면허도전’ 차사순할머니, ‘쏘울’ 차주됐다!

입력 2010.08.08 11:14:07

김현경 기자 | press@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1천번에 가까운 도전 끝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차사순 할머니에게 드디어 첫 차가 생겼다.

8일 현대자동차그룹은 7월 한 달 동안 진행한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캠페인을 통해 차사순 할머니를 포함한 세 명의 주인공들에게 차량 3대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차가 필요한 이웃에게 차를 선물하자’는 취지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3명의 주인공에게 하루 100개 이상 댓글이 달리면 차를 선물하는 방식으로 차사순 할머니에게는 쏘울이, 승가원 천사들에게는 스타렉스, 역도부 5총사에게는 카니발이 각각 전달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지만 도움이 되고싶다” “차 할머니께 끈기를 배웠다” “사고없도록 조심해서 타시길 바란다” 등의 댓글로 차 할머니를 응원했다.

나의 댓글은 타인에게 영향을 줘요!



<http://tajinyo.org>
<http://tw.tajinyo.org>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²

여권(한국, 캐나다), 출입국기록(한,캐,미), I-20(입학허가서), 졸업앨범, 봉인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전체글보기](#) | [베스트게시물](#) | [이미지오아보기](#)

[검색](#)

카테고리

나의활동

BILIRI

tajinyoma

since 2010.10.12

카테고리

앨범 4단계

53,887

★ 즐겨찾는 멤버

16,901명

☑ 게시판 구독수

197회

☑ 우리카피업 수

12회

초대

채팅하기

1990년 ~ 1999년 출생자

카피 가입하기

✓이벤트

카피업에서 N드라이브 파일 공유를 쉽게!

멤버들과 N드라이브를 통해 파일을 공유하거나 저장해보세요.

시원한 간식 이벤트에 자동 응모됩니다. 자세히보기

출입국 기록

여권

I-20 입학허가서

F-1 유학생비자

입학시 제출한 고등학교 성적자료 / SAT 성적자료 / 에세이 / 시 한편

졸업앨범과 상식적인 졸업식 사진 / 등록금과 장학금 입출금 전산자료

정식 우편 송달된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해의 학위 인증 상식>

전체글보기

more

공지

지난 공판에 대해 몇자 전합니다. [85]

15955

공지

구속되신 회원분들에 대한 카피방침에 .. [132]

14954

공지

1심 판결에 대한 의견 [124]

10502

공지

【브리핑】금주의 타진요 소식 (업데이트.. [32]

11123

공지

스탠포드 강연(?) [107]

38003

공지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러가지 일들에 대.. [78]

20944

• 현재 투데이 909 토말 5335220 [39]

947

• 한국 5월 SAT 시험 전적 취소 "문제유출때.. [4]

633

• 우리나라 올무들 자식교육 백년지대계 [2]

427

• 오랫동안 인사드립니다~~~ [3]

394

• 천재 타블로님이 작성하신 작품입니다. 스.. [20]

2529

알감 베스트

more

공지

지난 공판에 대해 몇자 전합니다. [85]

15955

공지

구속되신 회원분들에 대한 카피방침에 .. [132]

14954

공지

1심 판결에 대한 의견 [124]

10502

공지

【브리핑】금주의 타진요 소식 (업데이트.. [32]

11123

공지

스탠포드 강연(?) [107]

38003

공지

안녕하십니까. 최근 여러가지 일들에 대.. [78]

20944

• 타블로 정리. [94]

7035

• 난 보통 한국 아저씨입니다 [51]

15277

• 왜 자기유업을 인증을 못해서... 판사 겁.. [21]

12146

• 스텝이 발견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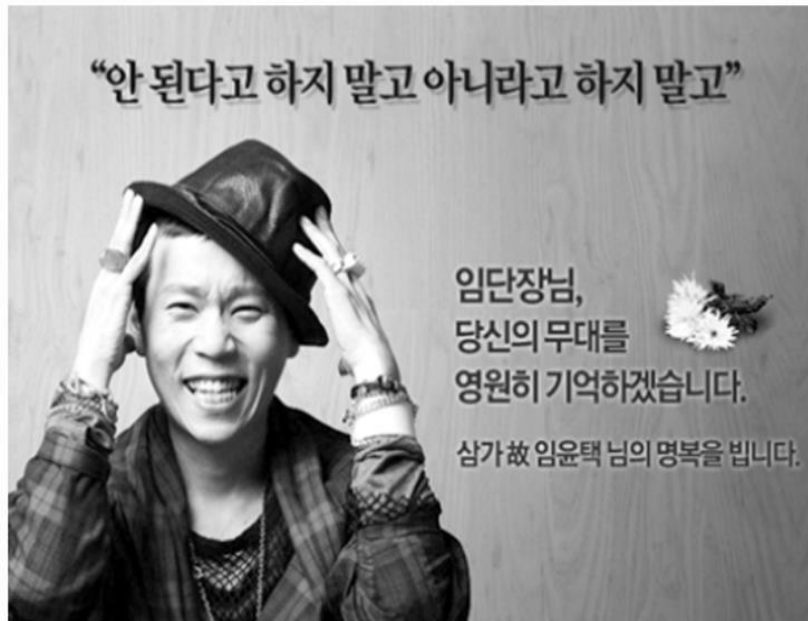
6412

• 타진요가 없어지는 길은 타블로 씨가 제대.. [20]

3946

나의 댓글은 타인에게 영향을 줘요!

죽음도 장난? 사이버폭력 심각



죽음도 장난? 사이버폭력 심각

"이제 토크쇼 안나가도 되고 공식적으로 아픈 얘기 안해도 되죠? 이제 다시는 아픈 거 말하고 싶지 않으니 다들 도와주세요...제발 부탁드립니다...제발..."

이제는 고인이 된 울랄라세션 리더 고 임윤택이 생전에 SNS 상에 남긴 글이다. 케이블방송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우승으로 스타가 된 고 임윤택씨는 위암 4기인 것을 밝히면서 이슈가 됐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투병을 의심하며 '진짜 아픈 것 맞느냐' '암 마케팅이다' '아직 살아있느냐'라는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서슴없이 달았다

나의 댓글은 타인에게 영향을 줘요!

노컷뉴스

사회

뉴스 ▾

이슈 ▾

포토영상 ▾

연예

스포츠

트래블

제보

카톡문자 욕설시비로 동급생 흥기로 찢은 초등생 피해학생 생명 지장 없어

2013-09-26 07:58 CBS 노컷뉴스



악성댓글

작성경험-

1위



10대 청소년 48%

허위사실정보

유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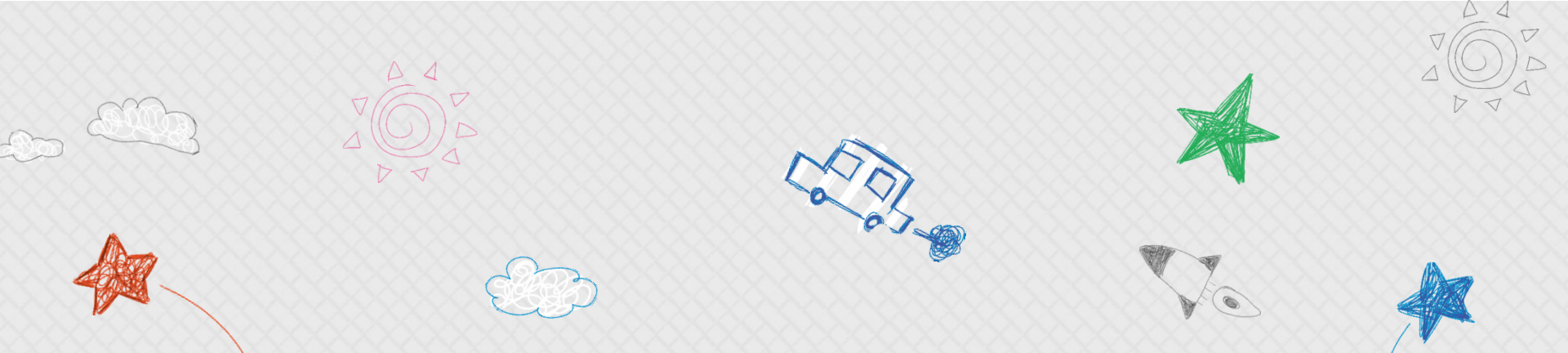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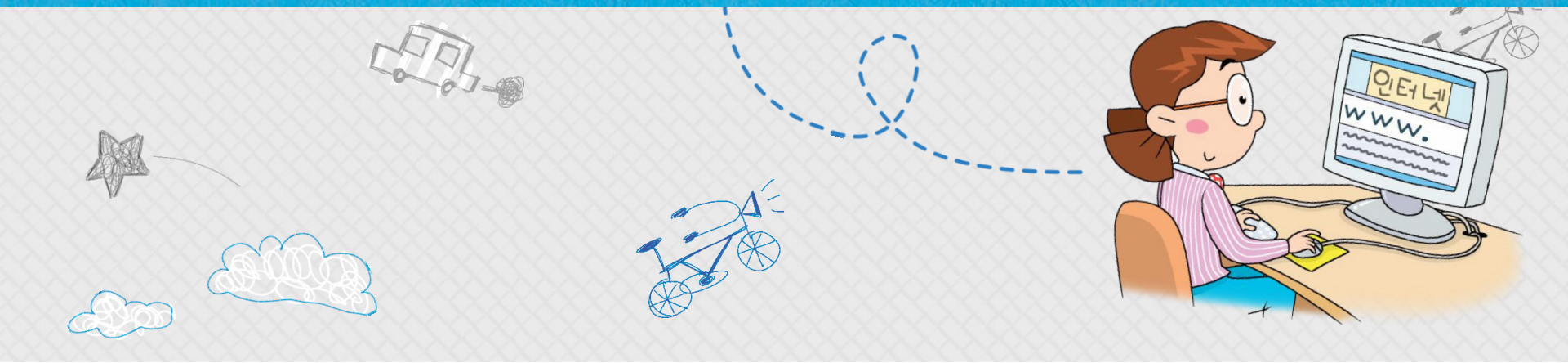
10대 청소년 73.8%

댓글을 쓸 때는 이런 마음으로

말과 글의 차이를 알고 씁니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댓글에 신중하고 조심스런 태도를 가집니다.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글로도 최선을 다합니다.



함께 만드는 **닷컴약속**



- **4. 함께 만드는 댓글약속**

- 1) 모둠별로 댓글약속 만들기를 위한 단어를 확인합니다.
- 2) 모둠 구성원들로 하여금 주어진 단어 중에서 댓글을 쓸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단어를 하나씩 골라 B4용지에 씁니다. 예를 들어 비난을 고른 경우는 '비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비난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 3) 우리 ()모듬은 댓글을 쓸 때 남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형태로 협력문장을 만들도록 하고 릴레이형태로 발표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함께 외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이 맡은 파트를 발표합니다.